

大學 卒業資格의 評價 방안

裴 浩 桐
(서울女大 教育心理學科)

이 글은 최근에 卒業論文制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를 究明하고 그 根本 趣旨에 입각하여 발전 방향 및 復興策을 탐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본 제도가 대학 教育內容의 內實을 기하며 教育結果의 質的 管理를 도모하는 評價的 機能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대학의 社會的 義務를 다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大學社會에서 널리 인식될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한국 대학은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은 어렵지 않다”, “대학은 입학만 하면 졸업은 보장되어 있다”, “대학은 공부하기 위해 가지 않고 졸업장을 따려고 간다”, “대학 졸업장은 취직이나 결혼에 필요한 증서로 쓰일 뿐이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해 주지 않는다” 등의 표현은 대학교육에 대한 社會的 觀念의 일단을 나타내 주는 것들이다. 이는 大學 教育 자체에 대한 不滿과 대학교육의 成果에 대한 강한 不信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동시에 각 대학 및 학과에서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학교육의 效果가 저조하며, 대학교육 자체의 質 管理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不滿과 不信은 大學 定員의 膨脹으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大衆化 시대를 맞

게 된 한국 대학교육의 構造的인 問題로부터 胚 胎된 것이며, 이는 현재 대학교육의 質的 側面을 대변해 주는 하나의 指標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과 불신감이 특정 요인에 의해서만 유발된 것이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대학 자체의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은 대학교육의 質的 管理 체제의 不實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고 가꾸어 온 이래로 고등교육의 질 관리 문제는 항상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法的·制度的 裝置를 강구해 왔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눈에 띄는 것은 교육법 115조 1항(所定の 全課程을 履修하고 일정한 試驗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 교육법 시행령 120 조 2항(교육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논문 제출의 방법에 의한다)에서 규정하는 學士學位 授與에 관한 규정

인 바, 卒業論文 提出을 학위 수여의 條件으로 규정하고 있다. 논문 제출은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각 학과별로 졸업 논문, 실형·실습 보고서, 실기 발표, 졸업 종합 시험 등의 방식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대학교육의 內實化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學士學位를 수여하기 위한 前提 條件으로 규정된 졸업 논문 제도가 실제 어느 정도로 施行되고 있으며, 그 名分(正當性)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고, 이 제도의 문제점을 診斷하여 그 발전 방향을 探索하기 위한 목적으로 本稿가 시도된다.

2. 問題의 診斷

단기간 동안에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진 筆者의 간략한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졸업 논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상당 수의 대학 인들은 이 제도가 우리의 대학 여건에서는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이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짝이 없고, 그것은 다만 교육법에 형식적으로만 규정해 놓은 제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8개 국·공립대학과 20개 사립대학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 대학 요람을 중심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개 국립대학(인문·사회 계열 학과 중심)의 몇몇 학과와 2개 사립대학 전체, 3개 사립대 일부 학과에서만 졸업 논문 제도를 교육과정에 반영시켜 실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소수 대학의 일부 학과에서는 졸업 시험, 특별 세미나, 연습, 프로젝트 방식 등의 변형된 형태로 부과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예능 계열 대학에서는 졸업 작품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거의 정규적으로 실기 발표를 실시하고 있었다(예능계 대학에서의 졸업 작품전은 이 제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성과나 목적 달성에 관해서는 본고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1970년대 이후 新設된 대학들 중에서 졸업 논문 제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대학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으로부터 이 제도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立證이나 하듯이, 국내 고등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나 전문 서적에서도 졸업 종합 시험이나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작품전에 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된 대학 평가 준거에서도 학사 자격 부여를 위한 졸업 시험 및 졸업 논문의 시행과 그 효과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의 外形的·量的 요인으로 인한 문제들, 즉 재정 결핍, 학생 정원의 조정, 시설 및 설비, 입학 시험 제도, 교수 부족, 학생 운동 등과 같은 가시적인 문제들 때문에 대학의 本質的·內部的·質的인 측면을 나타내는 문제가 가려워져서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현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본래의 趣旨나 意義 및 重要性에 비추어 보면, 이 문제는 중요한 연구 과제, 모니터링 및 평가의 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어 왔기에 결국 대학인들의 彼岸의 問題가 된 것이다.

단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대학(예능 계열 대학을 제외함)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는 사실상 有名無實한 制度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제도가 '7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많은 대학에서 활용되었으나, 최근 '8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신설 대학에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존 대학에서는 뚜렷한 代案도 강구하지 않은 채 이를 슬그머니 포기해 버린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했는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우선 대학의 量的 膨脹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교수의 부족, 시설 및 여건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교수-학생간의 개인적 접촉을 중시하고 개인 지도를 요하는 논문 지도가 有名無實한 것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 수가 급증하고 전임 교수가 부족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논문 지도나 졸업 논문 제도를 굳이 고수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대학의 졸업은 기존 학점의 취득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들에게 부담되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있었고 시간 강사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교과목 개설에만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敎育課程 改善을 위하여 이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지도 않고, 이 제도를 대체할 만한 代案을 강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 제도의 근본 취지나 의의를 대학인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이것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死藏하다시피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體系의인 研究 노력이 부족하였고, 이 제도를 외국으로부터 성급히 直輸入해 왔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졸업 종합 시험 제도는 18세기 이전부터 영국의 캠브리지대학이나 옥스포드대학에서 오랫동안 실천해 왔고, 미국에서는 버지니아대학이 이를 모방하여 1824년부터 미국 최초로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까지는 미국 대부분의 대학이 졸업 종합 시험을 제도화하여 시행해 왔으나, 1940년대와 '50년대에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로 감소되었다. 한국의 대학은 유럽 대학과 미국 대학 또는 일본 대학의 영향을 받아 졸업 논문 제도나 종합 시험 제도를 理想的인 眼目에서 초창기에 도입했으나, 대학의 성장·발달 단계에서 대학 안팎의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그 근본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도 못한 채 한국 대학의 실정에 맞게 定着시키려는 노력도 없이 이를 포기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의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이 제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 제도를 법적으로만 규정해 놓고 우리의 대학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이 제도의 성과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음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이는 한국 대학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는 意志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立證해 주기도 한다. 한편, 뜻있는 고등교육계 인사들의 초창기 의도와는 달리 너무도 거창한 대학 외부의 문제들로 시달려 온 한국 대학은 어려운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意慾을 상실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인들은 당장의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 제도의 운영이 하나의 부담으로만 여겨졌을 가능성이 많다. 즉, 논문

지도에 필요한 與件이 不備하고 여러 관련된 支援이 未備하기 짝이 없어 학생이나 교수 모두가 이를 하나의 부담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를 형식적으로만 시행해 오다가 감각스런 大學 自律化라는 들풍을 맞이하여 '귀찮고 부담스럽기만 한 것'을 용이하게 벗어 던져 버렸고 당국은 傍觀만 하게 되어 결국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격하게 증가한 학생들에 대한 소수 전임 교수들의 논문 지도는 필연적으로 피상적이며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일종의 要式行爲로 轉落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졸업 논문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論文다운 論文'을 쓰기 위한 '指導다운 指導'를 받아 보지도 못하고 이를 부담으로만 여겨 선배 작품을 모방하여 피상적으로 졸업을 위한 절차에 가름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중한 교수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교수 1인당 10여 명이 상(4학년 학생)의 논문 지도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짐작하면 이러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 당국 또한 법적으로 규정한 본 제도를 정책적인 면에서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당국은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에는 신경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여타 문제들에만 주된 관심을 쏟았기에 이를 각 대학이 반드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보완하고 지원하는 配慮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점만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하도록 開放해 놓고서 졸업 논문이나 졸업 시험을 賦課하는 법적 규정을 履行하지 않아도 아무런 規制를 가하지 않는 矛盾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대학과 여러 대학의 일부 학과에서는 여전히 졸업 논문이나 종합 시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학과들은 한국 대학에서는 졸업 논문 및 졸업 시험 제도는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으며 실천되지도 않는 제도로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추세에 대항하여 일종의 항변이라도 하듯이 고독하게 이 제도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학과에 소속한 대학인들이 어떤 目的

과 名分을 추구하기 위하여 꾸준히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本質的인 成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卒業論文制의 意義와 必要性

4년 동안의 대학교육 내용을 內實化하고 대학교육 결과의 質的 管理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사학위 수여 요건의 하나로써 졸업 논문(시험) 제출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졸업 논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의도는 여러 과정을 이수하여 일정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각 교과에서 학습하여 획득한 能力과 知識을 표현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학과의 教育目標을 종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말하자면 각 학과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단위 교과목(코스) 수준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보다 종합적인 목적과 여러 교과목에 걸친 공통적인 목적을 결합하여 보다 包括的이고 綜合的인 관점에서 그 達成 與否 및 水準을 평가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교과목 단위에서 추구할 수 없는 보다 차원 높고 포괄적인 上位 水準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시에 학생들은 여러 교과목에서 학습한 지식이나 능력을 綜合·統合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여러 교과목에서 학습한 것을 종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실제로 적용하거나 활용해 보려고 시도함으로써 適用·應用 能力을 함양할 수 있어 全人教育 및 專攻教育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또다른 근본 취지는 각 학과의 교육과정 목표를 종합적·포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동시에 學問의 自由와 秀越性을 추구하며 社會的 義務를 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를 추구함으로써 각 학과가 자율적으로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實質的인 效果를 얻을 수 있다.

논문 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대학교육 과정중에 나타난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進展度와 종합적인 成就度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여러 교과목에 대한 態度 및 反應을 파악할 수도 있고 교수 자신들의 교육 효과를 장기적으로 點檢·確認·評價할 수 있다. 아울러 논문 지도를 통하여 평범한 교과 강의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교수-학생 간의 相互作用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동시에 학생에 대한 進路 指導도 할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學生指導에 寄與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개인별·그룹별 지도에서 각 전공 분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 분야에서의 단기적·장기적인 進展도 할 수 있는 안목(능력)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종합 시험을 준비하거나 논문을 작성해 봄으로써 교과별 학점 취득만으로는 학습할 수 없는 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동시에 각 교과목 강의에서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成就感이나 滿足感을 맛볼 수 있다. 졸업 자격 획득에 대한 自矜心, 학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 및 실력을 갖추었다는 自自信感, 마땅히 통과해야 할 걸치를 통과했다는 成就感을 맛볼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요약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각 학과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보다 종합적이고 수준 높게 달성할 수 있고 교육의 질적 관리를 기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을 기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제도의 적용으로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불신감이나 불만이 사라질 수 있다는 비교적 광범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대학교육 효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개혁과 반성의 요구가 팽배해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대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마땅히 적용해야 할 기존의 법적 제도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일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대학 자신

의 교육 활동의 質的 管理를 기하고 교육 결과에 대한 責務를 다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學問의 自由를 추구하고 대학의 自律化를 기하며 대학을 보다 대학답게 기능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본 제도의 도입 및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發展方向의 探索

각 大學 및 學科가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의 질을 관리할 수 있고 교육 결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졸업 논문이나 졸업 종합 시험 제도를 채택·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대학인들이 이 제도의 教育的 意義와 根本的 趣旨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찬동하며 그 成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의 學問 自由와 眞理 探究라는 본질적 목적과 人材 養成 및 社會的 寄與라는 社會的 機能에 입각하여 각 대학 및 학과가 歷史的 背景과 教育 與件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自律的으로 채택하고 적극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유도·지원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 제도를 적용해 온 기존 대학에서 적용상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사하며 그 적용 효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제도가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활용되는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인가를 장기적·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바, 필요하다면 여러 형태의 實驗大學을 선정하여 그 적용 및 개발 효과를 연구·평가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 이루어질 이와 같은 노력을 위해서 필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發展方向을 探索해 본다.

졸업 논문 제도나 졸업 종합 시험 제도를 도입·활용하기 위해서는 부과된 여러 교과목과 졸업 논문 제도 간의 관계를 明瞭化하고 교육과정 體制와 系列을 보다 차원 높게 再整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학과별로 교육과정 특성 및 운영 면에 입각하여 졸업 논문 제도와 종합 시험 제도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더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교육과정 면에서의 주 기능과 목적을 부각시켜 교육과정을 개선·발전시키는 관점

에서 이를 적용해야 한다.

종합 시험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각 학과별 성격을 중시하여 기존의 부과된 교과목 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전공 분야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主要 概念, 知識 및 理論을 어느 정도 습득·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학과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 생활 전반을 통한 경험과 학습 결과를 종합하고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해당 분야에서 유용한 광범하고 장기적인 관점(안목)을 형성하도록 자극하고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러 교과목 공통의 上位 水準의 目標나 그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理論 및 理論體系, 中心概念 및 주요 方法論 등을 종합 시험의 주된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졸업 논문이나 실습(프로젝트 수행) 보고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학 생활을 통하여 학습하고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중심되는 探究方法과 概念, 理論을 활용하여 하나의 作品을 構想하고 實踐하여 完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논문이나 실습(프로젝트)을 기획·구상·실행해 봄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강조하고 중시하는 方法, 能力, 觀點을 理解·應用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작품 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성취·실현하는 수준과 질을 중시하여 학과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전공별·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실습이나 프로젝트를 부과하거나 종합적인 논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에는 사실상 여러 장애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학생 수의 과다 및 교수 수의 부족, 미흡한 교육 환경 여건이라는 構造的인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시간의 성의 없고 피상적인 논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 구태의연한 접근 방식으로 ‘探究過程’보다는 ‘結果’만을 중시하여 형식적인 작품 제출 행위에 치중하게 된다는 지, 필연적으로 主題의 制

限性으로 말미암아 종합적·포괄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희박하다든지, 이미 수료한 교과목과의 관련성을 중시할 수 없어 편향된 주제와 용이한 방법만을 추종하는 경향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종합 시험제의 경우에도 일부 교수들에 의하여 內容(敎育課程) 妥當度가 낮은 특정 교수의 전공을 강조하는 문항만을 출제하여 운영한다든지, 바람직한 문항을 준비하고 출제하여 실시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응시자 전원을 통과시킨다든지, 매년 當落의 기준을 변동시키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도 못한다든지, 탈락자에 대한 追隨 指導 없이 재응시한 경우에는 그 성취 수준에 관계없이 졸업을 위해 합격시키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조적이고 외부적인 대학의 문제점들이 다소 解消된다고 해도 여전히 발생될 수 있는 痼疾的인 것들이기 때문에 졸업 시험제 및 논문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阻害 要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5. 結語：補强策의 講究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근절시켜 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補强策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각 학과 교육 목표의 성격을 중시하여 졸업 논문과 종합 시험 중에서 어떤 교육 활동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각 활동의 목적 및 장점,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 교수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졸업 논문제와 종합 시험제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교수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많은 경우(4 학년을 기준으로 하여 교수 1인당 학생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졸업 논문 지도가 교수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교수-학생 비율이 적정 규모가 될 때까지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종합 시험제를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각 학과별로 모든 학생이 종합 시험에 합격해야만, 또는 수준 이상의 졸업 논문을 제출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必須 課程化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종합 시험 및 졸업 논문을 필수적 교육 활동으로 부과하는 攻 必須 學點制로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3 학년까지 부과하는 교과목의 교육과정 목표를 포괄하는 普遍的인 敎育目標을 정립하고 그것의 到達 與否 및 水準에 관하여 전임 교수들 간의 合意 點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종합적인 목표 달성과 종합적인 질 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각 학과가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構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공 필수 과목의 이수 성적 수준 및 학점 수 등을 종합 시험 응시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여 운영한다든지, 특별 세미나 코스·연습 코스·프로젝트 활동과 같은 다양한 교육 활동과 연계를 짓는 일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서 인문·사회 계열 학과에서는 2 학년말에 단과대학 수준에서 기본 능력 함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예비 종합 시험을 부과하고 4 학년 1 학기말에 학과별로 졸업 논문을 부과하는 방안을 並行할 수도 있다. 2 학년말에 예비 종합 시험을 통하여 전공 분야에의 진입 여부 및 수준을 평가하면 그 결과는 3, 4 학년 과정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귀중한 피드백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예비 종합 시험으로 처음 2 년간의 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 년간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후속되는 교육 활동의 질적 관리를 기할 수 있는 동시에 졸업 논문을 통하여 학위 획득 자격의 評定과 함께 전반적인 교육 활동의 질을 평가할 수 있어 본질적이고 실질적으로 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補助的 政策으로서 이것의 원만한 실천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육부 당국, 대학 당국, 각 학과 등의 다각적인 支援策이 뒤따라야만 한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자극하고 대학 당국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며 그 제도의 적용 과정 및 결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評價研究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 당국 차원에서는 논문 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強化策(논문 지도 시간의 확보, 논문 지도비 지급 등)과 구체적 실시에 따른 여러 측면의 支援(우수 논문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등)이 이루어지고, 각 학과에서는 논문 작성법의 지도, 논문 계획서의 작성·제출·발표 등의 行狀化와 같은 활동이 조화롭게 실천되어야만 한다. 특히, 당국의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과 동시에 본 제도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관련 補助裝置의 강구가 요청된다. 또한 대학 평가를 위한 準據로 졸업 논문(졸업 시험) 제도의 실행 여부, 충실도 및 성

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規定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본 제도가 大學教育의 質 管理, 學問의 自由 實現, 大學의 自律化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학과별로 프로그램의 質 管理 및 長期的인 改善을 기하는 동시에 대학의 社會的 義務를 실천하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충실하게 실천하는 데 모든 大學人이 同參해야 할 것이다. *